

로저 그린 박사, 현재까지의 개혁, 강의 2

5, 실존주의

© 2024 Roger Green 및 Ted Hildebrandt

이 분은 로저 그린 박사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입니다. 실존주의에 대한 25번째 세션입니다.

좋아요, 강의 번호 13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보는 것은 디트리히 본회퍼에서 현재까지의 신학적 발전입니다. 사실 디트리히 본회퍼에서 현재까지의 발전은 아닙니다. 그저 눈길을 끄는 제목일 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할 말은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신학적 발전, 우리는 우리가 사는 세상에 들어오려고 노력할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과 금요일, 이틀이 걸리고, 그 중 하나를 사용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수업이 하루 남았습니다. 기억하세요, 돌아올 때, 우리는 디트리히 본회퍼의 이틀간의 영상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금요일과 수요일이 있고, 우리는 시험을 준비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관참을 겁니다. 우리는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셈이죠.

그럼, 디트리히 본회퍼에서 현재까지의 신학적 발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존주의로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우리가 실존주의의 대표자, 기본 특징, 강점, 비판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저는 강의 계획서의 15페이지에 있습니다.

좋아요, 실존주의부터 시작해 봅시다. 흥미롭게도 실존주의는 기독교인, 신자의 삶과 사역에서 시작합니다. 그의 이름은 쇠렌 키르케고르입니다.

이제, 당신은 의심할 여지 없이 다른 과정에서 키르케고르를 접했을 겁니다, 맞죠? 당신은 다른 과정에서 키르케고르를 접했을 겁니다. 그래서

당신은 다른 과정에서 그에 대해 이야기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쇠렌 키르케고르.

매우, 매우 흥미롭네요. 키르케고르의 날짜를 주목하세요. 글쎄요, 지금으로선, 제가 이걸 할 수 있다면요.

이제 시작입니다. 저는 이번 여름에 덴마크에 가서 친구들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덴마크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는 쇠렌 키르케고르의 탄생 200주년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코펜하겐과 매우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고 그 삶과 모든 것의 일부였기 때문에, 여기 이 책이 있습니다. 제가 전시 중 하나에서 집어든 작은 책입니다. 코펜하겐 도시 전역에 키르케고르의 전시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책, 황금기 코펜하겐의 키르케고르에는 간결하고 그림으로 된 서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키르케고르의 200주년을 기념하는 이 시기에 코펜하겐에 있는 것은 매우,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여기 키르케고르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키르케고르를 기독교 실존주의자라고 부를 것입니다. 기독교 실존주의자. 그래서 실존주의가 키르케고르와 함께 시작되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실존주의자로서 실존주의는 존재라는 단어에서 유래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실존주의자로서 키르케고르는 인간 이성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는 다루고 있습니다. 그는 19세기 중반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이성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마음, 감정, 사람, 그리고 온 사람이 인간의 딜레마와 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인 그리스도인은 그런 일을 하는 한 종류입니다.

인간 이성의 한계를 인식하고, 인간 문제, 우리 삶 속의 인간적 요인 등을 파악하는 것. 키르케고르에 대해 읽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두려움과 떨림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책 제목에 있는 두 단어, 두려움과 떨림은 키르케고르가 자신의 개인적 삶에서 무엇을 다루려고 했는지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우리는 15페이지에 있습니다, 루스, 우리는 단지 신학적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현재에 대해서요. 그리고 우리는 쇠렌 키르케고르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대표자로서, 여기에 대표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대표로서, 저는 그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일을 시작한 추진자이자 흔들림꾼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이것을 역사적으로 따라가기 위해 잠깐만, 키르케고르는 기독교 실존주의자였지만, 20세기에 들어와서 실존주의는 기독교적 뿌리와 분리되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 들어와서 실존주의는 반드시 기독교적이지 않았지만, 키르케고르 자신은 기독교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그것을 기록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럼,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성격의 한 사람입니다. 대표자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을 부르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두 번째 사람은 루돌프 볼트만이라는 신약학자입니다. 그리고 우연히 다른 수업에서 볼트만을 만났나요? 볼트만에 대해 이야기했나요? 하지만 루돌프 볼트만은 신약학자로서 실존주의적 해석학을 통해 신약에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신약을 일종의 실존주의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는 매우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신약 학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볼트만의 예가 있습니다. 볼트만에게 죄의 정의는 그에게는 비진실적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볼트만에게 죄는 진실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당신은 신이 당신이 살기를 의도한 종류의 존재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죄에 대한 새로운 해석입니다.

그건 죄에 대한 새로운 이해입니다. 죄와 비진정한 존재를 정의하기 위해 일종의 실존주의적 범주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에게 구원은 구속된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당신의 존재가 하나님에 의해 구속되고, 원래 의도된 대로 되고, 비진실성에서 벗어나 구속된 완전한 존재를 찾는 것입니다. 그럼, 볼트만에 대해 아는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볼트만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루돌프 볼트만과 관련된 단어가 있습니까? 글썄요, 그 단어는 신화를 신약에서 제거하는 신화 해제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트만에게 부활은 신화입니다.

중요한 신화지만, 신화일 뿐입니다. 그래서 볼트만에게 부활은 무덤에서 나온 몸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의 삶 속으로 들어온 부활절 신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것은 성경을 보는 실존주의적 방식이며, 신약을 보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가 죽음에서 부활한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삶에서 부활절 신앙을 받고, 따라서 우리가 살아야 할 종류의 구원받은 존재를 사는 것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루돌프 볼트만, 그가 하려는 것은 키르케고르와 같은 사람들의 범주를 취하고 그것을 신약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가 언급하고 싶은 두 번째 인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언급하고 싶은 세 번째 인물은 폴 틸리히입니다. 폴 틸리히가 한 일은 실존주의 범주를 가져와 신학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래서 볼트만이 신약 연구에 적용한 반면, 틸리히는 신학에 적용했습니다. 틸리히는 신학이 그가 구원 신학이라고 부르는 것이 되려면 현대 세계의

사람들의 상황에 대해 말해야 한다고 정말로 믿었습니다. 틸리히가 살았던 시기를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현대 세계의 사람들의 딜레마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신학이 구원의 신학이 되려면 현대 세계의 문제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따라서 틸리히는 우리가 삶에서 직면하는 큰 문제는 무의미함이나 절망, 불안의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이것들은 모두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실존에 의문을 제기하는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그 무의미함, 절망, 불안, 매우 실존주의적인 종류의 범주를 이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당신이 누구인지 이해할 것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철학 수업에서 틸리히를 공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는 신이 누구인지 이해하는 데 흥미로운 정의를 가지고 있고 신은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신은 우리 존재의 근거입니다. 틸리히에게 있어서 삶에서 우리를 위협하는 것은 비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위협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하지만 신이 나타나서, 그는 우리 존재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그는 우리에게, 신은 우리에게 진정한 존재를 줍니다.

신은 우리의 존재에 진정성을 부여합니다. 그래서 틸리히는 흥미로운 사람입니다. 틸리히는 자신의 삶을 따라가면서 기독교에만 헌신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기독교 신학자였습니다. 저는 Temple University에 있을 때 Tillich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는 Temple University에 와서 연설을 했고, 그래서 저는 위대한 Paul Tillich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의 말씀을 듣는 것은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하지만 틸리히, 그리고 제가 그의 말씀을 들었을 때조차도 틸리히는 모든 종교가 틸리히에게 거의 동등하게 합당하다는 측면에서 전환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에서 기독교의 독특함, 신 안에서의 예수의 독특함 등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모든 종교가 같은 질문에 답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같은 질문을 가지고 있으며, 모든 종교는 그들만의 방식으로 그 질문에 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폴 틸리히입니다. 하지만 그는 신학을 실존적으로 해석할 것입니다. 그는 실존주의적 범주를 사용하여 신학을 해석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언급할 첫 번째 세 명의 선수는 키르케고르, 그 다음에는 신약의 볼트만, 그리고 신학의 틸리히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당신에게 일종의 대표성을 제공합니다. 두 번째, 실존주의의 몇 가지 기본적 특징과 실존주의 운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런 다음, 몇 가지 강점과 몇 가지 비판을 하겠습니다. 좋아요, 실존주의의 한 가지 특징은 실존주의에서 재치 있게 말하고 묻는 것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한 가지 특징은 인간의 중심성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매우 인간 중심적인 운동입니다.

키르케고르가 원래 그런 건 아니었지만, 확실히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관심이 있습니까? 반드시 신의 본성이나 그것이 그 안에 들어오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무의미함과 절망 과 불안 등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중심성은 매우 주관적이고 인간 중심적입니다.

둘째, 실존주의의 두 번째 특징은 내가 신의 모호함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식으로, 당신이 신을 당신 존재의 근거라고 부르려 한다면, 그것은 구약성서의 신이나 신약성서의 신처럼 들리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구약성서나 신약성서의 언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일종의 철학적 언어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자들이 모호한 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 그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을 우리 존재의 근거로 생각한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들의 신 이해에 대해 이야기할 때 좋아하는 것은 그것을 자유주의와 신정통주의와 비교하고 대조하는 것입니다.

자유주의에서 신은 임박했습니다. 개신교 자유주의에서 신은 우리 가운데 내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사회의 과정과 문화 등에서 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에 있어서 신은 우리에게 내려왔다. 신정통주의에 있어서 신은 우리 위에 있다. 그들은 신의 임박함이 아니라 신의 초월성을 강조한다.

그리고 그 초월적인 신이 세상에 심판을 가져온다. 그러니까, 흥미로운 대조가 있다. 실존주의는 모호한 신을 가지고 있다.

자유주의는 신의 임박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신정통주의는 신의 초월성, 신의 타자성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신의 다양한 측면을 얻게 됩니다.

저는 성경적으로, 신의 가장 성경적인 측면은 물론, 신이 초월적이고 완전히 다른 존재라는 정통적인 이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초월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육신이 된 그 말씀에 직면해 있다는 것을 이해합니다. 하지만 저는 실존주의자들은 정말로 이 모호한 신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 실존주의의 세 번째 특성이나 특징은 제가 불안의 불가피성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방식에 관한 한, 우리는 불가피하게 불안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그리고 당신이 모호하고, 알 수 없고, 헤아릴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신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당신의 불안으로 이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결국 실존주의자들은 신의 문제를 완전히 없애고, 기본적으로 이런 종류의 불안과 함께 현대 세계에서 살았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실존주의의 네 번째 특징은 실존주의의 목표가 무엇인가입니다.

그리고 실존주의의 목표는 진정한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키에르케고르와 같은 성경적 실존주의자는 진정한 존재는 신과 그리스도 등에 대한 이해에서만 올 수 있다고 말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을 놓아버린 실존주의에 도달하면 마치 원을 그리며 도는 것과 같습니다. 어떻게 이 진정한 존재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글썄요, 찾을 수 없습니다.

제 말은, 그게 문제죠, 그렇죠? 그래서 불안과 절망 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날의 세상, 오늘날의 대학 생활에서 포스트모더니즘에 대해 많이 이야기하고, 그게 일종의 진행형이고, 그게 일종의 종결어고 모든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대학에 갔을 때는 실존주의가 매우 많이 논의되고 이야기되었고, 등등.

그리고 우리는 카프카, 프란츠 카프카 같은 사람들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에 프란츠 카프카를 읽어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매우 흥미로운 독서였습니다.

실존주의 문학이기 때문에 읽으면 약간 우울해질 겁니다. 아니면 사르트르를 읽어 보셨나요? 사르트르를 읽거나 사르트르의 희곡을 몇 편 보셨다면요. 그래서, 제 대학 시절에는 이런 사람들의 작품을 읽었습니다.

제 말은, 이런 실존주의 책을 읽는 건 일종의 공통 핵심의 일부였어요. 그래서 저는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것과 함께 자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이 모든 것에 대해 말할 것이 있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실존주의의 몇 가지 기본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첫 번째 특징은 인간의 중심성입니다. 그것은 매우 인간 중심적입니다.

그것은 나에 대한 것, 나의 절망, 나의 불안, 나의 무의미한 삶에 대한 것입니다. 그것은 모두 나에 대한 것입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는 이런 종류의 인간중심적 풍미가 있었습니다.

키에르케고르가 아니라 키에르케고르를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실존주의에는 몇 가지 강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중 몇 가지를 언급하고 싶습니다.

저는 실존주의에서 직접 배웠습니다. 저는 키르케고르를 읽는 것을 좋아합니다. 하지만 저는 카프카, 사르트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작품을 읽습니다.

여기서 배울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언급하겠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인 비판도 몇 가지 해보겠습니다.

좋아요.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진실은 외적으로 경험되고 객관적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실존주의자들은 진실이 내적으로도 경험된다고 상기시켜줍니다. 여러분 자신의 경험, 여러분 자신의 마음, 여러분 자신의 내적인 감각도 진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진실은 내면을 들여다봄으로써 배울 수 있습니다. 실존주의는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실존주의의 교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것은 신학을 가르칠 때, 우리가 진실을 외적인 것, 즉 객관적인 것과 내적인 것, 주관적인 것으로 보고 싶을 때입니다. 우리는 둘 중 하나를 원하지 않고, 둘 다 원합니다. 실존주의의 강점은 진실이 내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좋아요. 제가 적어 놓은 두 번째 강점은 사람들이 독특하다는 인식, 사람들이 일종의 유일무이하다는 인식, 그리고 그들은 어떤 종류의 객관적인 수준으로 데려올 수 없다는 인식입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마치 그들이 이런 종류의 독특함이 없는 것처럼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종류의 객관적인 수준으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당신은 아마도 마틴 부버와 함께한 다른 강좌에 익숙할 것이고, 마틴 부버는 나-그것 관계의 구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신이나 사람들과 나-그것 관계를 맺었다면, 당신은 그 사람들을 대상화한 것입니다. 그리고 신이나 사람들과 나-그것 관계 대신, 그 관계는 나-무엇, 나-너 관계여야 합니다.

신과 다른 인간과의 관계는 나-너의 관계여야 합니다. 그리고 나-너의 관계에서, 그것은 당신이 이 사람들을 대상화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지만, 당신은 그들을 개인적으로 받아들이고,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등등입니다. 그래서, 마틴 부버가 등장했고, 그는 물론 이 시대에 살았지만, 마틴 부버가 등장해서 우리에게 사람들을 대상화해서는 안 된다고 일깨워줍니다.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실존주의에서 도움이 되는 세 번째 것은 우리가 정직해야 한다는 것을 배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신을 믿는 것을 어려워하고, 심지어 신을 믿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를 볼 때, 그들은 교회에서 예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인용문이지만, 그들은 단지 습관적으로 예배합니다. 그들은 우리에게 신에 대해 가르쳐 줄 것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실존주의에서 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신에 대한 믿음은 어렵다는 것입니다.

힘들죠. 쉽지 않아요. 그리고 저는 그것이 아마도 강점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존주의에서 배울 수 있는 네 번째 것은 삶의 문제에 직면하려는 의지입니다. 계속하세요, 희망. 사람들이 신을 믿기 어렵다는 인식.

네, 그건 실존주의였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가르쳐 준 한 가지는 많은 사람들이 신을 믿는 것을 정말, 정말 어렵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조차도, 그들이 외부인이고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은 교회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신에 대한 깊은 믿음이나 신앙, 신에 대한 이해가 없습니다. 그들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 저는 그것에 속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신을 믿기 어려워하고, 우리는 그것에 놀라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 현실을 직면해야 합니다. 그게 도움이 되나요? 그리고 또 다른 것은 죽음을 직면하려는 진정한 의지입니다. 실존주의에서 죽음은 현실입니다.

그것은 우리 모두가 처리해야 할 일입니다. 만약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다면, 우리 모두는 죽을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이 일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습니다.

Hannah, 너한테 이걸 말하고 싶지 않아-맙소사,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직전이야.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돌아오지 않으신다면, 우리 중 누구도 이 상황에서 살아서 나갈 수 없을 거야.

어쩌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 생각하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실존주의자들은 그것에 대해 많이 생각했어요. 그것은 그들의 무의미함과 절망과 불안 등을 몰고 온 것 중 하나였어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부활 교리를 통해, 물론, 그리스도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을 통해 그 질문에 답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죽음을 마주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처리해야 할 무언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실존주의의 강점으로 보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공허하고, 무의미한 삶을 산다는 인식입니다. 그것은 단지 삶의 인간적 현실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많은 사람들이 매우 진정한 삶을 살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실존주의는 그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래서 실존주의에는 몇 가지 강점이 있었지만, 네 번째 비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운동에 대한 비판을 언급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미 언급한 첫 번째 것은 궁극적으로 키르케고르가 인본주의였던 이후에 성장한 실존주의는 인본주의의 한 형태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실존주의에 대한 인간중심적 관점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신을 중심으로 한 신학이 필요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을 중심으로 하고 성령이 사역하는 신학이 필요합니다.

우리를 중심으로 한 신학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이야기의 중심이 아닙니다. 하느님이 이야기의 중심입니다.

그리고 저는 실존주의가 그것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실존주의에 대해 이런 비판을 하고 싶습니다. 둘째, 실존주의는 종종 사람들의 진정한 본성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실존주의는 사람들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이고, 무의미하고 절망적이고 불안하고 모든 것의 문제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의 관점에서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오히려 문제는 우리 자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가 아니라 신의 관점에서 우리가 누구인가입니다. 창조주의 관점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실존주의는 그것을 잊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시작하지 말고 신으로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신을 이해하고 이런 식으로 하세요.

하지만 그게 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두 번째 사항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실존주의가 죄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실존주의는 원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고, 저는 그것이 성경적 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신에 대한 반항의 실제 죄와 같은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존주의는 바르트의 은혜의 승리 교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대한 강력한 교리가 없다면 은혜에 대한 강력한 교리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본질을 이해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실존주의에 문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성경에 대한 견해입니다.

우리는 볼트만에서 시작하여 성경이 신화화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의 해석학에서 시작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실존주의자들이 성경을 무시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어떤 면에서도 그들을 도울 수 없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삶의 중심으로 보는 대신, 성경을 삶의 가장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것은 그들을 더욱 절망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자아, 자신의 세계 등에서 삶의 질문에 답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들의 성경에 대한 견해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아요, 실존주의와 여기 있는 몇몇 사람들이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키르케고르가 특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들의 글을 읽을 거라면, 저는 키르케고르부터 시작할 겁니다. 그는 이 문제를 다루지만, 기독교적 맥락에서 다루거든요. 좋아요, 실존주의자가 있나요? 실존주의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으신가요? 카프카와

사르트르 같은 좋은 글을 읽고 계신가요? 아니면 흥미로운 글이라고 해야 할까요. 좋아요, 두 번째는 에큐메니즘입니다.

에큐메니즘. 우선, 우리가 에큐메니즘으로 할 일은 교회의 일치와 관련이 있습니다. 좋아요, 에큐메니칼 운동 또는 에큐메니즘.

제가 먼저 하려는 것은 개신교가 분열된 이유와 개신교에 대한 인식이 커지는 것, 그리고 개신교가 어떻게 에큐메니즘의 관점에서 제도화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입니다. 논문 중 하나를 들어보신 분들은 지금 정확히 어떤 논문인지 기억이 나지 않지만, 어쨌든 논문 중 하나는 개신교 시대의 에큐메니즘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논문이었고, 네, 마지막 논문은 에큐메니칼 운동 전체를 다루었습니다.

그는 매우; 연설자는 에큐메니즘, 에큐메니칼 운동 등에 매우 관여했습니다. 좋아요, 우선 에큐메니즘에 대해서 말씀드리죠. 에큐메니즘은 먼저 개신교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 가톨릭과 정교회에 도달할 것이지만, 에큐메니칼 운동은 분열된 개신교도가 자신을 이해하려고 시도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좋아요, 개신교가 분열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저는 개신교가 20세기 초에 분열된 이유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아요, 첫 번째 이유는 신학적입니다. 신학적으로 개신교는 신학적, 신학적 분열, 신학적 분열의 분열 때문에 분열되었습니다.

일부 개신교도는 이것을 믿었고, 일부 개신교도는 저것을 믿었고, 이런저런 것들이요. 우리가 발견한 것은 20세기 중반부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런 신학적 것들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부 신학적 분열은 다른 신학적 분열보다 더 사소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가 분열된 첫 번째 이유는 신학적인 것이었고, 그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사회적인 것입니다. 개신교가 분열된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사회적 분열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민족주의, 일종의 국가 교회에서 한편으로는 영국의 성공회와 같은 국가 개신교 교회까지 모든 것이 될 수 있고, 어떤 윤리적 문제에 대한 사회적 분열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19세기 중반에 노예 제도 문제로 이 나라에서 심각하게 분열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을 수 있었고, 개신교를 분열시킨 많은 사회적 이슈가 있었습니다. 노예 제도 문제는 우리 나라에서 완벽한 예인데, 일부 개신교도는 노예 제도를 지지했고, 일부 개신교도는 노예 제도를 반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큰 분열이 생겼습니다. 좋아요, 세 번째, 분열의 세 번째 이유는 경제적입니다. 부유한 개신교도가 있고 가난한 개신교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자와 가난한 사람 사이의 그 분열은, 확실히 개신교도들이 스스로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잠깐만요, 그것이 우리를 분열시키고 있어요. 우리는 어느 정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왜 그렇지 않을까요? 글썄요, 그 이유의 일부는 경제적인 것입니다 .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분열된 개신교의 이유 중 하나는 개인주의였습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저를 강조한 것입니다. 알다시피, 저에 대한 이야기는 그만하고, 저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 개인주의와 사유화로, 그리고 그것은 분명히 개신교도들만의 문제가 아니었지만, 서구 세계의 사유화는 개신교에 분열을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개신교는 크게 분열되었고, 우리가 이것에 대해 뭔가 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좋아요, 그럼 이제 개신교도들이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불리는 이 운동에서 어떻게 자신을 통합하려고 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했을까요? 그들은 어떻게 함께 하려고 했을까요? 신의 축복이 있기를. 신의 축복이 있기를. 그러니까, 좋아요,

개신교도들이 말하기 시작한 첫 번째 말은, 저는 성경을 꺼내려고 했지만 그러지 않았지만, 적어주세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 개신교도들이 함께 모이기 시작하면서 말하기 시작한 첫 번째 말은, 잠깐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가 연합을 요구한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초에 많은 개신교도들에게 다양성이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분열, 우리가 겪었던 모든 문제, 우리가 겪었던 모든 분열, 우리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빛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연합에 비추어 그것들을 다시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개신교도들 사이에서 신학 운동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것은 개신교도들이 신학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그것은 다양성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개신교도들 안에 교파가 있어도 괜찮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 위에 세워진 어떤 종류의 연합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고, 그들은 에베소서 4:4-6에서 그 연합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그 신학적 비전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의 시작에서 개신교도들을 하나로 모은 것이 신학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작된 방식입니다. . 좋아요, 그리고 연합에 대한 이러한 인식이 커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점은, 연합의 필요성이 선교사들에 의해 크게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들이 19세기에 현장에 나가서 일했기 때문에, 그들은 우리가 기독교인보다 침례교도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기독교인보다 장로교도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우리가 기독교인보다 회중교도를 만드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선교사 양심은 에큐메니칼 운동을 주도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우리는 우리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교파적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한 일은 1910년 에든버러에서 세계 선교사 대회라는 큰 대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선교대회, 에든버러대회, 1910년은 많은 사람들을 모았고, 그 대회의 지도자는 20세기 선교 운동에서 매우 중요한 인물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존 모트였습니다. 존 모트는 특히 에든버러에서 열린 이 세계선교대회의 지도자가 되는 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신도였기 때문에 특히 흥미로웠습니다.

그는 감리교 평신도였습니다. 그는 설교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성직자도 아니고 그런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선교를 지원했지만, 선교사는 아니었습니다. 존 모트는 1910년 에든버러에서 열린 첫 번째 세계 선교 대회의 책임자로 임명되었습니다.

고든 칼리지에는 은퇴한 역사학 교수인 Askew 교수가 있었는데, 그는 이 세계 선교 대회에 대한 많은 연구를 했고 그것을 정말 잘 알고 있었습니다 . 그래서 John Mott가 이 사람들을 모아서 이 대회를 주재하고, 이 사람들은 개신교가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그것을 고쳐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류의 선교 운동에서 이 선교 대회가 생겨났고, 거기서부터 계속 나아갔습니다.

인식이 커지는 측면에서 또 다른 것은 우리에게 연합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세상의 사회적 문제와 세속주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개신교도들에게 이러한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함께 연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문제에 직면할 수 있을

것이고, 운동으로서, 사람들의 집단으로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세속화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문제에 우리 교파나 우리 그룹 내에서 개별적으로 대처하려고 시도하는 것보다 말입니다. 그것은 그들을 하나로 모아 문화, 세상, 사회적 문제, 세속화에 직면하게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하나의 목소리로 이를 수행하고 거기서부터 전진합시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매우 중요했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커졌고, 그것은 2차 세계 대전의 영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에큐메니칼 운동은 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실제로 제도적으로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들이 2차 세계 대전에서 직면했던 것은 폭정이었고, 디트리히 본회퍼는 그것을 직면했고, 우리는 나중에 언급할 것입니다. 특히 디트리히 본회퍼는 이러한 폭정을 직면했습니다.

그리고 질문은, 나치의 폭정, 히틀러의 폭정, 당신은 그것을 혼자 마주하고 싶은가, 아니면 개신교가 세계의 폭정에 대항하여 단결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최선인가? 그래서, 2차 세계 대전과 그 여파는 에큐메니칼 운동이라고 불릴 운동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의 제도화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어떻게 결국 제도화되었습니까?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날짜, 바로 1948년입니다.

좋아요, 1948년에 세계 교회 협의회라는 단체가 결성되었습니다. 1948년, 세계 교회 협의회. 처음에는 개신교였습니다.

그들이 가톨릭 신자나 정교회 신자를 환영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들 집안을 정리하고 싶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교회협의회는 1948년 암스테르담에서 개신교 단체로 결성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제도화하기 위해 1950년에 국가교회협의회가 결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중 하나는 미국에서 결성되었는데, National Council of Churches입니다. 1950년에 결성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World Council of Churches와 National Council of Churches가 형성될 때와 태어날 때 매우 좋은 신학적 의도로 결성되었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적이었고, 중심적이었고, 성경적이었고, 형성은 성경적이고 신학적이었습니다. 잠깐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세계 교회 협의회와 국가 교회 협의회는 기본적인 문제는 그들이 성경적 충성심을 잊었다는 것입니다. 세계 교회 협의회와 국가 교회 협의회는 지금 매우 명확한 성경적 권위에서 운영되지 않습니다.

슬픈 말씀입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그것은 더 성경 중심적인 다른 그룹들의 형성을 초래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에큐메니칼 운동은 본래 의도했던 바와 같지 않고, 창립 당시와 같지 않습니다.

제 인생에서의 간단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60년에 저는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대학에 입학한 건 1961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왔는데, 미시간주 앤아버에 있는 북미 에큐메니칼 청년 대회에서 당신 교단의 대표가 되고 싶은가요? 글썄요, 우선 저는 에큐메니칼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몰랐기 때문에 찾아가서 알아봐야 했습니다. 미시간주 앤아버에 있는 북미 에큐메니칼 청년 대회 말입니다. 그래서 가서 에큐메니칼이 무슨 뜻인지, 이런저런 것을 알아봤습니다.

미시간주 앤아버로의 여행을 생각했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3학년이었습니다. 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짐을 챙겼고, 우리는 미시간주 앤아버에서 일주일 정도 지냈습니다.

글썄요, 정말 흥미로운 경험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쯤에는 에큐메니칼 운동이 확대되어 가톨릭, 정교회 등을 포함하게 됐거든요. 하지만 제

교파에서 자란 아이로서, 제가 아는 교파는 거의 그뿐이었어요.
여러분에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마도 당신은 다양한 교파에서 자랐을 수도 있고, 제가 그때보다 더 넓은 시야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 교파에서 자란 아이로서, 만나는 건 꽤 흥미로웠어요... 제가 뭘 알았을까요? 가톨릭, 장로교, 감리교, 로마 가톨릭, 동방 정교회 사람들이 있었어요. 저는 이 사람들 대부분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었어요.

그것은 일종의 매혹적인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북미 에큐메니칼 청년 총회에 대해 말해야 합니다. 에큐메니칼 운동이 1960년대에 어느 정도 표류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훌륭한 설교, 성경적 설교, 정말 멋진 설교 등을 듣고 꽤 영감을 받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성경 공부는 하지 않고 우리만의 작은 그룹에서만 했습니다. 하지만 성경 공부에는 침례교, 장로교, 회중교 등이 있었는데, 저는 그것이 꽤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에큐메니칼 운동에 대한 한 가지 경험을 했을 때, 그것은 일종의 흥미롭고, 제 생각에는, 꽤 계몽적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에큐메니칼 운동이 가는 방향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면에서, 신학적 발전의 측면에서, 에큐메니즘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럼 첫째, 실존주의가 있고 둘째, 에큐메니즘이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휴식을 취하기 위해 5초 정도 휴식을 취해야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축복되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잠깐 쉬세요. 오늘은 배교자가 한 명뿐이에요. 그걸 기뻐해요.

좋은 일이네요. 수요일에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저는 월요일에 볼티모어에 있어요.

다음 주에는 쉬어요. 그리고 첫날과 셋째 날에 돌아올 때, 우리는 디트리히 본회퍼의 영상을 보여줘요. Memories and Perspectives라는 아주 좋은 영상이에요.

제가 작은 공부지를 드릴게요. 무엇을 적어야 할지 알 수 있도록요. 그리고 금요일에 마지막 시험을 위한 첫 번째 리뷰 세션이 있어요. 수요일에 돌아와서 텍스트에 대한 질문 네 개를 할게요.

그러니 그렇게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 네 가지 질문이 금요일부터 여러분을 이끌어 줄 겁니다. 그리고 다음 월요일에는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에는 텍스트에서 마지막 공부 시간을 함께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요일에 질문 4개를 주면 금요일과 수요일을 모두 다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올 때 세션이 5개 남았습니다.

그게 당신이 가진 것입니다. 금요일에 강의를 마치자마자 저는 이곳을 떠나 볼티모어로 향합니다. 그러니 추수감사절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금요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쉬는 동안 괜찮으셨나요? 그리고 모든 게요. 좋아요.

여기서 언급하고 싶은 것은, 그저 언급하는 것이 아니라, 디트리히 본회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배경에 대한 몇 가지를 언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신학에 대한 것입니다.

본회퍼는 칼 바르트, 그의 멘토, 그리고 다른 모든 것과 함께 신학의 무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을 준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러니 본회퍼에 대해 언급해 보겠습니다. 그의 날짜는 1906년, 1945년입니다.

그리고 여기 디트리히 본회퍼의 사진 몇 장이 있습니다. 여기 본회퍼의 이전 사진이 있습니다. 여기 테겔 감옥에서 찍은 본회퍼의 마지막 사진이 있습니다.

저는 사무실 책상 위에 그 사진을 걸어두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배경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의 신학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는 배경, 기억, 관점을 살펴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서는 많은 것을 다루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1906년 독일에서 태어난 디트리히 본회퍼가 테이프와 비디오에서 보시다시피 매우 부유하고, 잘사는, 독일의 명문가에서 태어났다는 것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의 삶에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그는 적어도 특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당시 독일에서 가장 유명한 정신과 의사 중 한 명이었고, 등등.

그래서 그는 매우, 매우 특권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히틀러가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본회퍼는 대학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고백 교회라고 불리는 지하 교회의 지도자가 되었고, 아니면 지도자 중 한 명이라고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회퍼는 고백 교회의 지도자 중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히틀러가 루터교회를 나치화했기 때문입니다. 루터교회는 히틀러에게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그래서 독일에는 자신을 고백 목사라고 부르는 목사들이 있었고, 그들은 히틀러나 전체주의에 대한 충성을 맹세하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여기서 바르멘 선언을 언급했습니다. 글썄요, 디트리히 본회퍼가 그 운동의 리더가 될 것입니다.

그의 배경 때문에, 월요일에 다시 볼 수 있을 텐데, 그가 목사였고, 신학자였고, 평화주의에 꽤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도 언급해야 합니다. 테이프에서 볼 수 있을 겁니다. 꽤 확신을 가지고 평화주의자로.

이제, 저는 그가 정식 평화주의자라고 말하고 싶지 않지만, 그는 20세기에 기독교가 나아갈 방향이 평화주의라고 확신했습니다. 목사, 신학자,

평화주의자로서 그가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흥미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목사, 신학자, 평화주의자가 어떻게 히틀러 암살 음모에 연루될 수 있었는지 궁금할 것입니다.

그리고 물론 그 이유는 그가 마침내 나치 정권이 신이 정한 정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삶의 어느 지점에 도달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부가 해야 할 일의 경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합법적인 정부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서구 문명을 보존하려면 히틀러를 무너뜨려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음모에 연루되었고, 그로 인해 그는 체포되어 두 곳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첫 번째 장소, 테겔 감옥입니다.

아니, 여기는 두 번째 장소 중 하나, 테겔 감옥입니다. 하지만 어쨌든 그는 체포되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본회퍼는 게슈타포에 의해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매우, 디트리히 본회퍼에게는 매우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당연히 그는 교수형에 처해졌으니까요. 그는 삶의 중간에 루터교 신자로 자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집에서 예배를 드렸다는 의미에서 훌륭한 루터교 신자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특별히 그렇지 않았고, 그의 가족은 교회에 다니는 가족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 초반, 십 대 시절에, 본회퍼는 어머니와 함께 정기적으로 교회에 다니기로 결심했고, 그렇게 했습니다. 지역 루터교회에 정기적으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가족이 그에게 하기를 바랐던 것과는 아주, 아주 다른 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족 모두가 의학이나 법학을 전공했지만 신학은 아시다시피, 그는 신학을 공부하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0세기의 위대한 신학자 중 한 사람이 되었지만, 그가 죽었을 때는 너무 어렸습니다. 물론 그의 멘토 중 한 명은 칼 바르트였습니다. 그래서 디트리히 본회퍼의 배경에 대해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며칠 동안 *Memories and Perspectives*에서 그것을 볼 것입니다. 비디오를 보여주는 데 거의 두 수업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비디오를 보면서 그의 삶에 대한 몇 가지 언급을 하고 여러분이 기록할 수 있는 몇 가지 메모를 제공할 것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그의 신학으로 넘어가 봅시다. 디트리히 본회퍼의 신학은 어떻습니까? 글썄요, 그의 신학에 대한 다섯 가지를 언급하겠습니다. 첫 번째, 그의 교회론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교회 교리로 시작하겠습니다. 이것은 디트리히 본회퍼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교회 교리입니다. 그가 쓴 가장 초기의 글 중 하나는 교회 교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는 신학적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관점에서도 교회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여기서 사용하는 단어 중 하나는 지역 사회에서 교회의 중요성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역 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공동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그것은 거의 사회학적 분석입니다. 하지만 교회는 어떤 의미에서 개인 위에 서는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모든 것을 분석할 때 20세기 중반에 무엇을 보았을까요? 서유럽에서 그는 매우 개인화된 삶을 보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교회를 단순히 개인들이 모인 집단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는 사람들의 공동체로 이해하기를 바랐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제 말은 이미 여러 수업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아실 겁니다. 기독교는 매우 개인적인 종교이지만, 결코 사적인 종교는 아닙니다.

그리고 디트리히 본회퍼는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켜줍니다. 기독교는 매우 개인적이지만, 결코 사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저만이 제 방에 앉아 성경을 넘기며,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괜찮지만, 그 모든 이해를 그리스도의 몸, 교회, 지역 사회로 가져와야 합니다. 그래서 지역 사회가 매우 중요했습니다. 좋아요, 교회와 말씀의 관계.

디트리히 본회퍼는 교회론의 관점에서,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은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될 수 없습니다.

둘 중 하나가 없이는 다른 하나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우 중요해집니다. 또한 세상, 교회, 세상의 관점에서 교회는 결코 세상과 분리된 수도원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세상 안에서, 그리고 세상의 고통 속에서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제, 그것이 우리가 테이프에서 볼 수 있는 교훈입니다. 그것은 디트리히 본회퍼가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배운 교훈입니다.

그가 미국에 유학을 왔을 때, 그의 친구 중 한 명은 프랭클린 피셔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할렘 출신의 흑인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는 본회퍼를 할렘에 있는 자신의 흑인 교회인 아비시니아 침례교회로 데려갔고, 그는 미국 흑인 사회의 고통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그는 교회가 그 고통에 대해 알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교회가 그 고통받는 세상과 어떻게 분리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후 그가 유럽으로 돌아갔을 때, 나치가 집권했을 때,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내 세상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그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와 어떻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교회는 유대인 공동체와 함께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교회는 그 일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세상에서 교회는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좋아요, 그리고 교회 회원으로서, 교회론적으로, 우리는 교회의 회원입니다. 우리는 교회 회원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고, 값싼 은혜는 그저 교회에 가서 희생을 하지 않고 예수님을 좋은 사람으로 보는 것이고, 아시다시피, 교회가 당신에게 별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값싼 은혜입니다.

그러니, 원한다면 값싼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지만, 그렇게 한다면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아니면 값비싼 은혜의 삶을 살 수도 있는데, 값비싼 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그리스도의 모든 요구를 당신의 삶에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제자도. 그게 값비싼 은혜입니다.

그럼, 선택권이 있습니다. 값싼 은혜인가, 비싼 은혜인가? 여기 그의 책인 제자도의 비용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가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동안, 정말 빠르게, 여러분 중 제자도의 비용을 읽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한 명, 두 명, 세 명, 네 명의 손을 들어보죠. 좋아요, 좋아요.

여름 독서 목록. 지금 당장 적어두세요. 제자도의 비용.

기독교 문학의 관점에서 꼭 읽어야 할 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위대한 책 중 하나입니다. 글쎄요, 그는 제자도의 대가를 어떻게 시작할까요?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값싼 은혜는 우리 교회의 치명적인 적입니다. 우리는 오늘 값비싼 은혜를 위해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Cost of Discipleship의 첫 문장에서 그는 전투의 함성을 내뿜습니다. 아시죠.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습니까? 그것이

그가 알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론은 Dietrich Bonhoeffer, 공동체로서의 교회, 그리고 우리가 공동체로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신학에 관한 본회퍼에 대한 다른 내용도 있고, 이틀 더 남았어. 그러니까, 나는 여기서 딱 맞고 있어, 우리는 잘하고 있어. 좋아, 좋은 하루 보내.

금요일에 만나요. 금요일에 강의를 할 거예요. 금요일에 여러분을 열심히 가르칠 거예요. 그러면 추수감사절 휴가가 일주일 동안 있을 거예요.

이 분은 로저 그린 박사입니다. 그의 교회사 수업인 종교 개혁에서 현재까지. 이것은 실존주의에 대한 세션 25입니다.